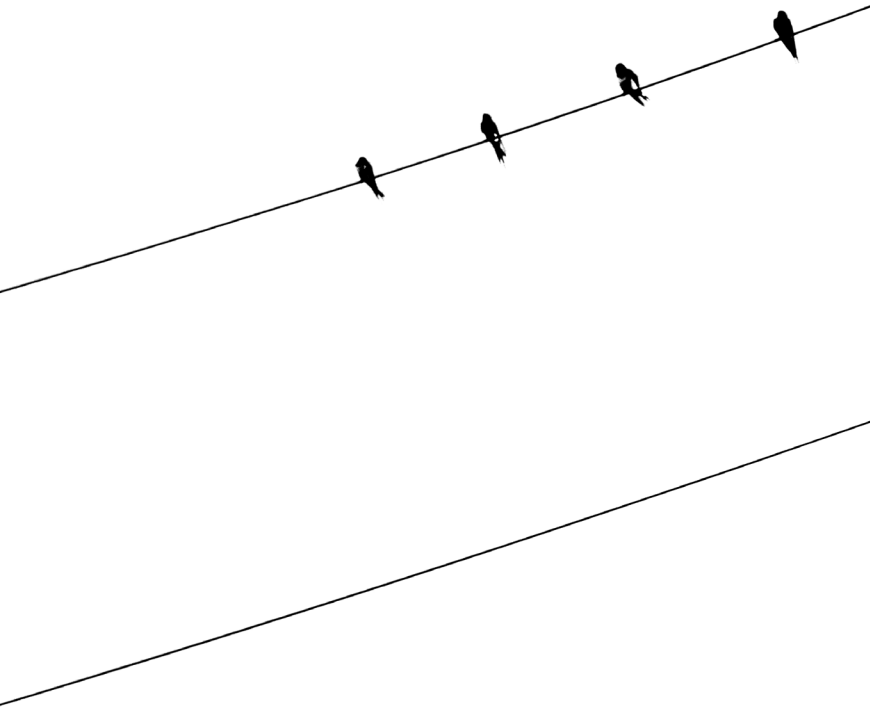


다른 행성의 공룡들



Dinosaurs on Other Planets

다른 행성의 공룡들

Danielle McLaughlin

-
옮긴이 신 지현

Danielle McLaughlin / 다니엘 맥러플린
다른 행성의 공룡들

PUBLISHED BY Literature Ireland
36 Fenian Street
Trinity College Dublin, Dublin Do2 CH22
Ireland

COMMISSIONING EDITOR Sinéad Mac Aodha

ART DIRECTION AND ARTWORK Gaia Baldassarri
EDITORIAL TEAM Isabel Dwyer and Lynsey Reed

ORIGINAL TITLE *Dinosaurs on Other Planets*
COPYRIGHT © Danielle McLaughlin, 2015
THE ORIGINAL ENGLISH EDITION WAS PUBLISHED BY The Stinging Fly
Press (2015) AS PART OF THE COLLECTION *Dinosaurs on Other Planets*
© The Stinging Fly Press, 2015
COPYRIGHT FOR THE KOREAN TRANSLATION © Jeehyun Shin, 2023
COPYRIGHT FOR THIS EDITION © Literature Ireland, 2023

PRODUCED BY Language
www.language.ie

ISSN 2811-6143

대한민국 원주
-
Dublin, Ireland



Literature Ireland 는 아일랜드 문학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설립된 아일랜드 국립
기관입니다. 우리는 번역을 통해 전 세계
독자들에게 현대 아일랜드 문학의 아름다움을
소개합니다.

*Literature Ireland is the national agency
in Ireland for the promotion of Irish
literature abroad. We work to build an
international awareness and appreciation
of contemporary Irish literature, primarily
in translation.*

집 뒤편에 있는 울타리에서 산 방향을 바라보니 저 위 오두막 앞에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오두막은 울긋불긋한 관목지가 뺨뺨하게 줄지어 선 나무들로 이어지는 곳에 있었다. “콜먼!” 케이트가 소리쳤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이 뚜렷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도끼를 내려치는 모습을 보며 이 정도 거리에서는 그를 청년이라 해도 믿겠다고 생각했다. 최근 들어 그녀는 남편이 스무 살 청년 무렵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하곤 했다. 그녀는 콜먼이 이미 40세가 넘었을 때 그를 처음 만났고, 그가 젊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

때는 4월 초, 겨울이 지나고 들판과 개울이 다시 푸릇푸릇해지고 있었다. 도로변의 잔디가 바깥으로 영역을 넓히는 바람에 좁았던 도로가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 생겨서 부른

건 아니예요.” 남편이 아직 몇 미터 더 앞에 있었지만 케이트는 소리쳤다. 콜먼은 코트를 잔디밭에 던져두고 셔츠만 입을 채었다.

“이머가 런던에서 전화했어요. 집에 온대요.”

콜먼은 도끼를 내려놓았다. “잠깐 오는 건가, 아니면 완전히 오는 건가?” 오두막의 앞쪽 벽과 다른 쪽 한 면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없었다. 낡은 차양 틀이 잔디밭 위에 놓여있고, 녹색 캔버스 차양이 둘둘 말려 있는 금속 기둥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오두막 안쪽 바닥—형체가 사라진 오두막 바닥도 바닥이라면—에는 맥주 캔, 담요, 둥글게 뭉친 검게 그슬린 은박지가 흩어져 있었다.

“며칠만요. 이 동네에서 대학 친구가 전시를 한대요. 자세한 얘기는 없었어요. 이머 성격 알잖아요.”

“알지.” 그는 이렇게 말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언제 온대?”

“내일 저녁예요. 오신도 같이 온대요.”

“내일? 내일 오는 걸 오늘에서야 연락한 거야?”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션이 학교 들어간 이후론 처음 보는 거예요.” 케이트는 남편이 방 얘기를 꺼내길 기다렸지만, 그는 하던 일을 빨리 마저 하고 싶다는 듯 도끼를 집어 들었다.

“산림청에서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산림청에서 올해 한 번도 안왔어. 산불이든 뭐든 신고를 해도 오는 일이 없다고.” 그는 흔적만 남은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나무 기둥에 도끼를 휘둘렀다. 짹 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기둥은 그대로였다. 그는 기둥에 박힌 도끼를 빼내 한번 더 내려칠 준비를 했다.

케이트는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인 데너히네 가족은 그 주 초 옥수수 씨를 밭에 뿌리고 까마귀를 노끈에 묶어 장대기 끝에 달아 두었다. 케이트가 옆을 지날 때마다 여우의 키 높이 정도에 매달린 까마귀가 바람에 흔들려 공중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떨어지곤 했다. 이곳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케이트는 산 까마귀를 총으로 잡아 밭에 매달아 둔다는 것을 모르고 데너히 부인에게 저 까

만 건 뭘로 만든 인형이냐고 물었다. 당시 어린 꼬마였던 데너히네 두 아들은 케이트의 말을 듣고 엄마 등 뒤에 숨어 킬킬대고 웃었다.

저녁식사 후, 케이트는 프레스 다리미에서 파란 곰돌이 무늬의 이불 커버를 꺼내 식탁 위에 넓게 펼쳤다. 난로 옆 깔개 위에 웅크리고 있던 고양이가 몸을 일으키고 다가오더니 이불을 요리조리 살폈다. 고양이는 의자 위로 훌쩍 뛰어올라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불 주름을 펴는 케이트를 바라보았다. 같은 무늬의 베게 커버와 노란 토끼 모양의 잠옷을 담아두는 주머니도 있었다. 콜먼은 부엌 한 칸에서 머그잔에 보브릴(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소고기 맛의 영국 음료 - 옴긴이)을 만들고 있었다.

“어때요?” 케이트가 물었다.

“좋은.”

“그렇게 멀리서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케이트가 말했다.

“전에도 썼던 그거 아닌가?”

“맞아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오는 거니까요. 너무 유치해요?”

“이제 와서 다른 걸 찾을 수도 없는데 뭐.” 그가 말했다. 케이트는 눈꺼풀이 떨리는 걸 느꼈다. 두통의 전조 증상이었다. 그녀는 콜먼이 이불 커버를 보면 방에 있는 물건을 옮겨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적어도 그녀가 물건을 옮길 수 있도록 방을 비워주겠다고 할 줄 알았다. “그래도 그 갈색 깃털 이불보단 낫죠.” 그녀가 말했다. “존이 학생일 때 샀던 그 오래된 거 말예요.” 하지만 콜먼은 보브릴을 쪽 들이켠 후 머그잔을 물로 헹구고, 그릇 건조대에 머그잔을 거꾸로 세워놓을 뿐 다른 말이 없었다. “그럼 잘 자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고양이가 의자에서 뛰어내리더니, 살금살금 부엌을 가로질러 깔개 위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다음날 아침, 케이트는 남편의 정장부터 옮겼다. 그녀는 콜먼이 밖에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존의 옛날 방에 둔 그의 정장을 꺼내 층계참을 지나 부부 침실에 가져다 두었다. 예전에는 침실 옷장에 모든 옷이 다 들어갔는데, 그녀의 옷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그 안에서 자가 증

식하고 몸집을 불린 것 마냥 지금은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가 옷걸이봉에 걸린 코트와 원피스를 한쪽으로 밀자, 옷들은 마치 움직이기 싫다는 듯 딱 버티고 그녀를 밀쳐냈다. 그녀는 한시간 동안 두 방을 오가며 옷, 신발, 책 등을 옮겼다. 지지난 겨울, 콜먼은 헛간에 있던 선반기계—퇴직 기념으로 노동조합 직원들로부터 받은 선물이었다—를 집으로 들여와 존의 옛날 방에 설치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그 방에서 나무를 가공했다. 아침 일찍 방을 들여다보면, 낮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존의 싱글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이곤 했다. 그때부터 콜먼의 살림살이가 점점 존의 방으로 옮겨 가기 시작했다. 그가 더 이상 램프나 나무 그릇을 만들지 않는 걸로 보아 선반기계에는 흥미를 잃은 듯했지만, 거의 1년 동안 그는 부부 침실이 아닌 존의 방에서 혼자 잠을 청했다.

방에는 잡지, 다 쓴 건전지 같은 잡동사니가 굴러다니고 창틀 위에는 금이 간 머그잔이 놓여있었다. 케이트는 큰 자루를 가지고 와 콜

먼이 어질러 놓은 물건을 자루 안에 담았다. 방구석에 놓인 책상에는 선반기계와 납작끝, 둥근끝, 칼 같은 도구들이 놓여있었다. 케이트는 기계와 도구를 상자 안에 따로 담았다. 그녀는 콜먼의 잠옷을 치우고, 즐겁게 웃고 있는 파란 곰돌이가 그려진 깨끗한 린넨 커버를 침대에 씌우고, 옆에 놓인 의자에 토끼 모양의 잠옷 주머니를 세워놓았다. 멀찍이 떨어져 정돈된 모습을 감상하던 그녀는 콜먼이 문가에 와 있음을 눈치챘다. 그는 자루에 시선을 고정한 채 양손을 엉덩이에 대고 서 있었다.

“아무것도 안 버렸어요.” 그녀가 말했다.

“애는 다른 방에서 자도 되잖아?” 콜먼은 자루 안에 손을 집어넣고 그 안에서 건전지를 꺼냈다.

“이머 방 말이에요? 그 방에선 이머가 잘 거예요.”

“애도 그 방에서 같이 자라고 하지?”

케이트는 남편이 자루에 건전지를 다시 넣고 마치 선물 뽑기를 하는 어린 아이처럼 기대에 찬 얼굴로 자루 안을 뒤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금이 간 머그잔을 꺼내 바지에 쓱쓱 닦고
는 다시 창틀 위에 올려놓았다. 그 모습을 본
케이트는 부아가 치밀었다.

“그 앤 여섯 살이에요.” 케이트는 말했다. “더
이상 아기 취급할 수 없다고요. 그 애가 와있는
동안 모든 게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랑 자
주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
다. ‘거짓말이 아니잖아. 맞는 말인데 뭐.’ 그러
다 남편의 시선을 느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또 이머가 괜히 이걸 궁금하게 하고 싶지 않
아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양 팔을 들어 방을
가리켰다. “이 상황 말이에요.” 잠시 콜먼은 케
이트의 말에 반박하려는 듯 보였다. 그녀는 생
각했다. ‘다른 때 같으면 나랑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겠지만, 남편 성격상 오늘은 얘기를 안
고 싶어할 거야.’ 하지만 콜먼은 잠옷과 케이트
가 미처 보지 못한 침대 밑에서 신발을 꺼내 집
어 들고는 아무 말없이 방을 나가버렸다. 이후
침실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이 항상 잠옷을 놓
아두던, 남편 침대 쪽 베개 아래 잠옷이 곱게
개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집 앞에 차 한 대가 와서 멈춰 섰을 때, 콜먼은
통화 중이었다. 딸을 찾으러 서둘러 밖으로 나
간 케이트는 운전석에 웬 남자가 앉아있는 것
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머는 조수석에 앉아 있
었는데, 전보다 머리색이 더 검고 머리 길어도
더 짧아 보였다. “안녕하세요, 엄마.” 이머는 차
에서 내려 케이트에게 키스를 건넸다. 그녀는
전통의상처럼 가슴 앞부분을 리본으로 교차해
뭉은 빨간색의 튜닉 블라우스를 입고, 검은 바
지를 안으로 집어넣은 빨간색 부츠를 신고 있
었다. 그녀가 차 뒷문을 열자 오션이 밖으로 뛰
어나왔다. 여섯 살 치고는 작은 몸집에, 창백
한 얼굴과 얇은 갈색 머리를 가진 아이는 햇살
이 그리 밝지 않음에도 눈부시다는 듯 눈을 깜
빱였다.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이머가 아이를 앞
으로 떠밀며 말했다.

케이트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
는 아이가 눈물을 보고 당황할까 봐 아이를 꼭 끌

어안고 눈을 감았다. “세상에.” 그녀는 한걸음 뒤로 물러나 아이를 쳐다보며 말했다. “존 삼촌하고 점점 닮아가는구나.” 아이는 커다란 회녹색 눈으로 케이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케이트는 아이의 머리를 형클어뜨리며 말했다. “기억 못할 거야. 존 삼촌은 지금 일본에 살거든. 네가 존 삼촌을 만났을 때는 아주 갓난아기였단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남자가 차 밖으로 나왔다. 여윈 몸에 누런 피부를 지닌 그는 곤색 스포츠 자켓을 입고, 짙은 색의 둥근 안경테를 쓰고 있었다. 그가 한쪽 발을 살짝 끌며 차 옆을 지나오는 바람에 그가 지나온 자갈밭에 얇은 고랑이 생겨났다. 케이트는 그가 그냥 운전사 아닐까, 이머가 곧 지갑에서 돈을 꺼내 수고했다고 건네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보았다. 하지만 그는 딸의 어깨에 팔을 둘러고, 딸은 어깨에 올려진 그의 손에 코를 비볐다. 이머 나이의 두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40대 후반은 되어 보였다. 집에 있던 고양이가 따라와 케이트의 다리에 몸을 비비더니, 등을 둥글게 말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케이트

는 이머가 남자를 소개시켜주길 바랐지만, 그녀는 고장난 후드 지퍼 때문에 찢절매고 있는 오션에게 눈을 돌렸다. “파벨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케이트에게 악수를 건넸다. 그는 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서 여행가방 두 개를 꺼냈다.

“내 도와주도록 하지.” 앞문에 모습을 드러낸 콜먼이 말했다. 파벨에게서 가방 두 개를 빼앗다시피 받아 들고 집에 들어간 그는 홀을 절반쯤 지나다 갑자기 멈춰 섰다. 그가 전화기가 놓인 탁자 옆에 가방을 내려놓고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찢러 넣었다. 콜먼을 따라가던 사람들 모두 걸음을 멈추고 계단 아래 둥글게 모여 섰다.

“오션.” 이머가 말했다.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할아버지께서 숲으로 사냥 데려가주신대.”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곰도 있나요?”

“곰은 없단다.” 콜먼이 말했다. “하지만 여우는 한두 마리 정도 볼 수 있지.”

파벨은 카펫 위에서 발을 이리저리 움직였

다. “아, 아빠.” 이머가 방금 막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이 사람은 파벨이에요.” 파벨이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자 콜먼이 잠시 망설이다 손을 잡았다. “만나서 반갑네.” 콜먼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여행가방을 손에 들었다. “방으로 안내하지.”

케이트는 홀에 남아 다른 이들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콜먼이 앞에서 성큼 성큼 걷고 나머지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파벨을 만난지 얼마 안 되었나보군.’ 그녀는 생각했다. 오션이 엄마 블라우스 끝자락을 손에 꼭 쥐고 엄마 옆에 딱 붙어 낯을 가리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콜먼은 가방 하나를 이머의 방 앞에 내려놓고 방문을 열었다. 아래층에 있던 케이트는 딸과 손자아이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방에는 각종 잡동사니가 널려 있고 이머가 고스(고딕에 뿌리를 두고 기성세대에 반항하기 위해 생겨난 영국 하위문화의 한가지 - 윙킨이)에 심취해 있을 때 그려 둔 그림들이 벽에 걸려있었다. 콜먼은 다른 가방을 존의 방으로 옮겼다. 차를 끊이러 부엌으로 가던 케이트

는 콜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여기가 자네 방일세.”

“저 자는 대체 언제까지 있는거지?” 아래층으로 내려온 콜먼이 물었다.

“그렇게 날 쳐다보지 말아요.” 케이트가 말했다. “당신이 모르는 건 나도 몰라요.”

콜먼은 식탁 의자에 앉아 뺨뺨한 식탁보가 덮인 식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파벨은 도대체 어떤 부류 이름이지?” 그가 말했다. “동유럽인? 리투아니아 사람? 도대체 어느 나라 이름 인거야?”

케이트는 도자기 찻잔세트를 꺼낼까 고민하다 너무 구식인가 싶어 대신 머그컵을 꺼냈다. “나중에 말해주겠죠.” 케이트는 이렇게 말하며 접시 위에 비스킷을 담았다.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식으로 데려오면 안되지.”

“그럼요.” 그녀가 말했다. “안되고 말고요.”

케이트는 손주가 올 것을 대비해 전에 사둔 플라스틱 컵을 발견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왔던 것은 재작년 크리스마스로, 그때 산 머그

잔 곁면에는 가슴에 복슬복슬하게 털이 난 개
똥지빠귀와 눈꽃이 그려져 있었다. 케이트는
티 타월로 머그잔을 닦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
다.

“오실패를 볼 때면 말이죠,” 그녀는 말했다. “존
이 생각나요. 유모차를 타던 어린 아기일때도
존이랑 꼭 닮았었거든요. 사진첩을 가져가서
이머한테 보여줘야겠어요.”

콜먼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다
른 놈에 대해선 전혀 안 물어봐도 되나?” 그가
말했다. “우린 그냥 암말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눈꺼풀이 너무 심하게 떨리는 바람에 케이
트는 손바닥을 눈꺼풀 위에 대고 꼭 누르며 눈
을 진정시켰다. “오실패 친아빠를 얘기하는 거라
면,” 그녀가 말했다. “이머가 먼저 말 꺼내기 전
엔 가만히 있어요.” 눈 위에 댄던 손을 치우자
문가에 서있는 오실패가 보였다. “오실패!” 그녀는
오실패에게 다가가 아이의 부드럽고 가는 머리카
락에 손을 얹었다. “이리 와서 비스킷 좀 먹으
렴.” 그녀가 접시를 건네자 오실패는 비스킷을 자

세히 살펴보았다. 아이는 비스킷에 손만 가까
이 대고 집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별 모양으로
생긴 초콜릿 비스킷을 하나 집어 들었다. 아이
는 비스킷을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고 천천
히 씹었다. 그리고 마치 비스킷을 살피듯 자신
을 바라보는 케이트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케
이트는 미소 지었다. “여기 앉아서 비행기 타고
온 얘기 좀 해보렴.” 그녀는 하나는 자신이 앉
고 다른 하나는 오실패를 앉힐 요량으로 의자 두
개를 꺼냈다. 하지만 오실패는 식탁 반대편으로
가 콜먼 옆자리에 앉았다.

오실패가 비스킷을 다 먹자 콜먼은 아이 쪽으
로 접시를 밀었다. “하나 더 먹으렴.” 아이는 아
까보다 빨리 비스킷을 골라 들었다. “말해 보
렴.” 콜먼이 말했다. “파벨 아저씨는 어디 출신
이지?”

“첼시요.”

“뭘 하는 아저씨고?”

아이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비스킷을 한입 더
베어 물었다.

“여보,” 케이트가 쏘아붙이듯 말했다. “냉장

고에 레모네이드가 있는지 봐줄래요?”

그는 소파에서 자고 있는 걸 들킨 고양이가 케이트를 바라볼 때의 눈빛—죄책감과 반항심이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없이 일어나 레모네이드를 가지러 냉장고 쪽으로 향했다.

계단에서 발걸음과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곧 이머가 부엌으로 들어오고 그 뒤를 파벨이 따라왔다. 이머는 냉장고에서 우유 통을 꺼내 통에 입을 대고 우유를 마셨다. 그녀는 손으로 입가를 닦고 우유 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파벨은 케이트와 콜먼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지만 테이블 의자에 같이 앉지는 않았다. 그는 대신 창가로 가 바깥 정원과 관목지, 그리고 관목지 너머의 숲을 쳐다보았다. “저건 신 같은 존재들이죠?” 산꼭대기에서 천천히 날개가 돌아가고 있는 풍력 터빈 세 개를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죽은 닭이라도 몇 마리 제물로 바쳐야 될 것 같아요. 숫염소를 바치던지요.”

케이트는 파벨의 목소리가 BBC에서 방영하는 역사 프로그램 나레이션을 맡은 성우를 닮

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음을 살짝 길게 발음해서인지 성우 목소리와는 다른 선율적인 무언가가 느껴졌다. “저 앞에 가서 전쟁 얘기하고 그러지 마요.” 케이트가 말했다. “저것들 때문에 안 그래도 골치가 끊이지 않거든요.”

“제물이 부족했던 거 아닐까요?” 파벨이 말했다.

케이트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차를 권하려고 했으나, 이머가 곁에 와 그에게 팔짱을 껴다. “우린 술 마시러 나갈 거예요.” 이머가 말했다. “한잔만 할 거니까 늦지 않을 거예요.” 이머가 오션에게 손키스를 보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그녀는 파벨과 밖으로 나가며 이렇게 말했다.

오션은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아 비스킷을 만지작거렸다. 케이트는 그날 아침 보드게임을 발견하고 빈 방 의자 위에 놓아둔 것이 생각났다. 가서 가져올까 잠시 생각했지만, 방에 있었던 게 사라진 걸 알면 파벨이 자기가 없을 때 그녀가 방에 들어왔다는 것을 눈치챌까 봐 그만두었다. 오션은 비스킷을 하나 더 집

었다. “텔레비전으로 만화영화 볼까?” 케이트가 말했다.

콜먼은 마치 케이트가 아이를 탄광에 보내자고 제안하기라도 한 것처럼 케이트를 쏘아보았다. “텔레비전은 애를 바보로 만들어.” 콜먼이 말했다. 그는 아이에게 몸을 가까이하고 말했다. “할아버지랑 나가서 여우 사냥할까?”

아이는 이 말을 듣자마자 비스킷과 레모네이드를 팽개치고 식탁 의자에서 내려왔다. “사냥해서 잡은 여우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물었다.

“그건 잡고 나서 생각해 보자꾸나.” 콜먼이 말했다. 그는 케이트에게 몸을 돌리고 물었다. “같이 안 갈거죠?”

“네.” 케이트가 말했다. “난 저녁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남편과 손주를 뒷문 현관까지 배웅하고 그들이 정원을 가로질러 울타리를 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울타리의 빈 공간으로 몸을 비집고 나가던 오선의 머리카락이 철조망에 걸린 것을 보고, 케이트는 비단 같은 금발머리 몇 가닥이 철조망에 영킨 채 남

아있겠구나 생각했다. 마치 양들이 지나간 자리에 남긴 양털뭉치처럼. 울타리를 넘어간 그들이 관목지를 지나고, 잔디와 들장미와 묘목이 있는 평지를 지나는 모습이 보였다. 콜먼이 앞장서고, 오선은 달리다시피 그 뒤를 쫓고 있었다. 잔디는 땅을 막 뚫고 올라온 초봄 새순들로 가득했다. 여름이 되면 잔디는 아이의 키보다 더 높이 자랄 것이고, 잔디로 건초를 만드는 가을이 되면 아이의 금발보다 더 밝은 금빛을 띠게 될 것이다. 오두막을 허물고 남은 목재더미를 지나던 콜먼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허리를 굽혀 땅에서 뭔가를 집어 들었다. 그는 집어든 것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아이에게 손짓하더니 손에 든 것을 아이에게 주었다. ‘애한테 무슨 쓰레기 같은 걸 준거 아닐까.’ 케이트는 생각했다. 무엇이었는지는 몰라도 아이는 받아든 것을 풀밭에 버렸고,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그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숲 속으로 들어가자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케이트는 부엌을 분주히 오가며 저녁을 준비하고, 창가에 놓인 제라늄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녀는 싱크대

에서 플라스틱 컵을 씻고, 저녁이 다가오자 창문 너머 데너히네 헛간 위로 보이는 하늘 색깔이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시간 후 남편과 손주가 달가닥 소리를 내며 부엌으로 돌아왔다. 오선의 신발과 바지 끝 자락이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아이는 뭔가를 가슴에 소중하게 꼭 끌어안고 있었다. 케이트가 아이의 신발을 벗겨주려고 가까이 가서 보니 동물의 해골이었다. 다용도실로 간 콜먼은 프레스 다리미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다. 우당탕탕 프라이팬과 솔이 넘어지는 소리, 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뭐 찾아요?” 케이트가 물었지만, 콜먼은 대답없이 앞마당으로 사라졌다. 오선은 부엌에 남아 해골이 귀여운 고양이이라도 되는 것 마냥 살포시 쓰다듬었다. 해골은 희고 누리끼리한 색에 코가 삐죽하고, 이마가 넓었다.

콜먼이 플라스틱 통과 5갤런짜리 표백제를 들고 부엌에 돌아왔다. 그는 아이에게서 해골을 받아 통 속에 넣고, 표백제가 통에 찰랑찰랑 가득 찰 때까지 들이부었다. 아이는 그 모습을

경외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자.” 콜먼이 말했다. “이제 깨끗하게 될 거다. 이 삼일 지나고 아주 새하얗진 걸 볼 수 있을 거야.”

“이것 좀 보세요.” 아이가 케이트의 손을 잡고 그녀를 가까이 데리고 갔다. “공룡 해골을 찾았어요.”

“양일거야 아마.” 콜먼이 말했다. “철조망에 걸린 게야. 공룡은 수백만 년 전 유성 때문에 지구에서 다 사라졌지.”

케이트는 통 속을 들여다보았다. 파리로 추정되는 작고 검은 물체가 해골에서 떨어져 나와 표면에 둥둥 떠있었다. 해골은 눈구멍 주변이 푸르뎡뎡하고, 군데군데 진흙이 묻든 자국이 남아있었다.

“유성이 뭐예요?” 아이가 물었다.

앞문이 열리더니 이머와 파벨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애가 유성이 뭔지 모른단다.” 그들이 부엌에 들어오자 콜먼이 말했다.

이머가 뭔가 못마땅하다는 듯 눈알을 굴려 케이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공기 냄새를 킁킁 맡더니 코를 찌푸렸다. “부엌에서 병원 냄새

가 나요.” 이머가 말했다.

파벨은 플라스틱 통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이게 뭐니?” 그가 말했다.

“공룡 해골이에요.” 오슨이 대답했다.

“그렇구나.” 파벨이 말했다.

케이트는 남편이 정정하길 예상했으나, 그는 아무 말없이 안락의자에 앉아 신문을 치켜 들고 읽을 뿐이었다. 그녀는 쭈그리고 앉은 파벨의 정수리를 위에서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약간의 곱슬기, 제멋대로 뒤쪽으로 휘어진 머리카락 뭉치가 보였다. 그의 머리카락에서 오렌지 포맨더(오렌지에 정향을 꽃아 만든 방향제 겸 크리스마스 장식 - 윙킨이) 향 같은 톡 쏘면서도 달콤한 샴푸 냄새가 풍겼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정원을 바라보았다. 저녁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나가서 허브를 좀 따올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가위와 바구니를 챙겨 밖으로 나갔다. 먼저 파슬리를 따고, 그 다음 타임을 따 바구니에 담았다. 손에 기어올라오는 작은 벌레들을 털어내고, 그녀를 따라 나온 고양이가 바구니에 얼굴을

들이밀자 안 된다고 꾸짖었다. 집 안에 있던 누군가가 불을 켜다. 케이트는 땅거미가 내려앉은 정원에서 불 켜진 부엌을 배경으로 가족 풍경이 펼쳐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꽃무늬 커튼이 쳐진 창문이 액자 틀처럼 가장자리를 두른 그림에 콜먼과 오슨, 그 다음에는 오슨과 이머, 그 다음에는 이머와 파벨이 등장했다. 갑자기 까르르 웃는 소리가 종종 들리곤 했다.

부엌으로 들어가자 콜먼, 오슨, 파벨이 식탁 위에 상자를 놓고 둥글게 서 있었다. 계단 아래 공간에 보관해 둔 오래된 테이토(아일랜드의 대표적인 감자칩 브랜드 - 윙킨이) 종이 상자였다. 케이트는 따온 허브를 싱크대 옆 체에 받쳐 두고 식탁으로 갔다. 콜먼이 상자 안에서 먼지 쌓인 학교 과제물, 앞바퀴가 빠진 금속 장난감 트럭, 주석으로 만든 장난감 병정을 꺼냈다. “아하!” 그가 말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지.” 그는 상자 안에서 둥글게 말린 종이를 꺼내 오슨의 머리를 장난스럽게 톡톡 쳤다. “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마.” 콜먼이 말했다.

콜먼은 말려진 종이를 식탁 위에 펼쳤다. 종

이가 다시 말려들어가는 바람에 그는 가까이에 있는 선반에서 책 두어 권을 가져와 종이 위쪽과 아래쪽에 올려 두었다. 종이는 가로 61센티미터, 세로 122 센티미터의 포스터였다. “이게 소행성대란다.” 콜먼이 말했다. 그는 포스터 가운데 그려진 원형 궤도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포스터에서 손가락을 떼자 손 끝에 회색 빛 먼지가 묻어 있었다.

파벨은 케이트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케이트는 남편의 어깨 너머로 광활한 우주, 눈부신 은하수의 별과 위성과 먼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넓게 펼쳐진 우주의 공간과 시간, 회전하는 우주가 생각만으로도 아찔했다. ‘우리가 저기 있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우리 모습이 보인다면 아마 저기쯤 있겠지. 데너히네 가족도, 일본에 사는 존도 저기쯤 있겠지.’ 포스터는 존의 옛날 방에 걸려있던 것으로, 구겨지고 가장자리가 조금 닳긴 했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포스터에 그려진 행성들을 바라보며 지난 수년간 계단 아래 있던 행성들이 자전하고 위

성들이 그 주위를 조용히 공전하고 있었겠구나 상상했다. 행성 그림을 보니 소녀시절 갖고 놀았던 오르골 보석함이 생각났다. 그녀는 몇 년 후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그 보석함을 다시 발견했는데, 걸쇠를 벗기고 뚜껑을 열자 작은 발레리나 인형이 째하고 모습을 드러내고 회전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오래 지나 발레리나 인형이 입은 망사 스커트는 찢어지고 빛이 바랬지만, 음악에 맞춰 팔을 들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은 어렸을 때 본 그대로였다.

“요 놈이구나.” 콜먼이 포스터의 왼쪽 꼭대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요 놈 때문에 공룡들이 사라진거란다.” 오선은 발끝으로 서서 경이로운 표정을 하고 포스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콜먼이 가리킨, 먼지와 혜성 꼬리를 만들며 날아가는 불타오르는 암석 그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이게 지구하고만 충돌했나요?”

“그렇단다.” 콜먼이 대답했다. “그럼 충분하지 않니?”

“그럼 다른 행성에는 아직도 공룡이 살겠네요?”

“아니란다.” 콜먼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파벨이 동시에 말했다. “그럴 수 있지.”

아이는 파벨에게 몸을 돌리고 말했다. “정말요?”

“아닐 이유가 없잖나.” 파벨이 말했다. “우주에는 수백만 개의 다른 은하와 수십억 개의 다른 행성들이 있단다. 당연히 다른 공룡들이 많이 있을 거야.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

“외계인이요?” 아이가 말했다.

“그래, 외계인. 네가 외계인이라고 부르겠다면 말이지.” 파벨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하고 굉장히 닮았을지도 몰라.”

콜먼이 포스터 위에 올려 둔 책을 치우자 포스터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두루루 말렸다. 그는 오션에게 포스터를 건네 주고, 다른 물건들을 상자 안에 다시 담은 뒤 덮개를 덮었다. “자, 아가.” 콜먼이 말했다. “다시 계단 아래 갖다 두러 가자꾸나.” 오션은 포스터가 마치 소총이라도 되는 양 겨드랑이 아래 끼고 할아버지를 따라 부엌 밖으로 나갔다.

저녁 식사 후, 케이트는 뒷정리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을 한사코 말렸다. 그녀는 카드 놀이를 하라고 거실로 모두 내보낸 뒤, 혼자 식탁을 치우고 싱크대 안에 접시를 넣어 두었다. 산에서 세 개의 빨간 불빛이 보였다. 야간에 비행기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풍력 터빈에 켜진 불빛이었다. 케이트는 싱크대에 비눗물을 가득 채우고 비누거품이 뭉게뭉게 벌집처럼 솟아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수백 수천만개의 반구형 거품이 더러운 접시 위에서 황홀경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은 케이트와 콜먼이 거의 일년만에 침대를 함께 쓰는 밤이었다. 콜먼은 케이트가 눈앞에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옷을 훌렁 벗었다. 그는 무덤덤하게 셔츠와 바지를 벗은 뒤 옷을 개어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케이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남편의 몸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숲과 산이 아닌 방을 배경으로 도끼 없이 맨손인 남편을 보니 남편이 늙었다는 것, 그의 다리 근육이 축 처졌다

는 것, 그의 가슴털이 희게 센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눈에 보였을 뿐, 딱히 싫지는 않았다. 그녀는 베개 아래 둔 잠옷을 꺼내고 블라우스의 단추를 푸르기 시작했다. 세 번째 단추를 풀고 나자, 더 이상 방 안에서 옷을 벗을 수 없을 것 같아 화장실로 가 마저 탈의했다. 그녀는 아직 못 봐줄 정도의 몸매는 아니었다. 예전보다 가슴 크기가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가녀린 몸매에,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인 다리는 여전히 쪽 뻗어 있었다. 나이를 먹긴 했지만 피부가 처진 것도 아니었다. 허벅지와 배도 늘어지거나 쭈그러든 부분 하나 없이 탄탄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망가져 더 이상 옛날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 여자들과 달리 케이트는 아직 노화의 저주를 겪지 않았다. 물론 아직 52살이기에, 앞으로 노화가 찾아올지는 모르는 일이었다.

방에 돌아오자 남편이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가 자는 쪽의 이불을 들추고 침대에 몸을 눕혔다. 콜먼이 그녀를 한번 슬쩍 쳐다보더니 다시 신문을 읽었다. 방은 조용했다. 신문

지가 부스럭대는 소리, 산 쪽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전부였다. 그녀는 소설책을 몇 페이지 읽었으나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다.

“아이랑 내일 낚시나 다녀오려고.” 그가 말했다.

케이트는 읽던 책을 내려놓았다. “글쎄, 좋은 생각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녀가 말했다. “오늘 굉장히 바빴잖아요. 내일은 시내에 같이 가서 영화관에 가려고 했어요.”

“영화는 런던에서도 볼 수 있잖아.”

“내일 상황을 보죠.” 케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책을 다시 집어 들었다.

콜먼은 신문을 치우고 침대맡에 놓인 램프 불을 켰다. 그는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지 갑자기 일어나 납작하게 눌린 베개를 다시 폭신하게 손으로 매만지고 뒤집기를 반복했다. 케이트도 그녀 쪽의 램프 불을 끈 뒤, 팔 다리가 남편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세를 조정하고 어둠 속에 누웠다.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층계실에서 나는 발소리, 다른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

리가 들렸다. 조금 후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침대 머리판이 벽에 반복적으로 쿵쿵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는 이머의 옛날 방에서 혼자 자고 있을 오션에게도 들릴 터였다. 케이트는 희한한 그림들—길다란 목에 몸의 절반은 까마귀고 나머지 절반은 인간인 괴상한 잡종 동물을 그린 그림들—에 둘러싸여 말뚱말뚱 눈뜬 채 누워있을 손자아이를 생각했다. 그녀는 그림에서 페인트 조각이 떨어져 나와 자고 있는 아이 위에 검은 재로 쌓이는 모습을 상상했다. 콜먼은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고 옆으로 누운 채 몸을 둥글게 말았다. 옆 방에서 쿵쿵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것을 들으며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가 어찌나 조용하게 누워있는지 숨소리마저 겨우 들릴 정도였다. 남편이 깨어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그간 결혼생활을 통해 남편은 잠들면 코를 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케이트는 층계를 내려가자마자 누군가 먼저 일어나 아래층에 있음을 직감했

다. 마치 밤새 아래층에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이 형성된 것을 누군가 그녀보다 먼저 뚫고 지나간 듯한 느낌이었다. 다용도실 쪽에서 신나서 재잘대는 아이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다. 잠옷을 입은 아이는 표백제가 담긴 통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청바지와 셔츠를 입고 샤워로 젖은 머리가 그대로인 파벨이 서 있었다. 오션은 흥분한 목소리로 통 속의 뭔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해골의 눈구멍을 가득 메운 표백제 표면 위에 작고 희고 통통한 무언가가 둥둥 떠있었다.

케이트는 자세히 보려고 몸을 굽혔다. 그녀의 팔이 파벨의 어깨를 스쳤지만 파벨은 몸을 떼거나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그들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통 안을 들여다보았다. 떠 있는 무언가는 구더기였다. 배에 이랑 같은 주름이 있고 몸이 통통한 놈이었다. 오션은 파벨과 케이트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거 건져도 돼요?” 아이가 물었다.

“안돼!” 파벨과 케이트가 동시에 소리쳤고, 케이트는 웃음을 터뜨렸다. 얼굴이 붉어진 케

이트는 몸을 일으켜 통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파벨도 일어나더니 손으로 젖은 머리를 쓸어 넘겼다. 오선은 구더기에 매료된 듯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통에 얼굴을 가까이 댄 나머지 숨을 쉬면 표백제 표면 위에 물결이 만들어지고, 앞머리가 표백제에 닿을 정도였다. “그만하면 됐어.” 케이트는 이렇게 말하며 아이의 팔꿈치를 잡고 일으켰다.

“해골 꺼내도 돼요?”

파벨은 어깨를 으쓱하고 케이트를 쳐다보았다. 그는 어제보다 유난히 조용하고 풀 죽은 듯한 모습이었다. 케이트는 해골과 해골 주변에 둥둥 떠 있는 부유물을 바라보았다. 텅 비어 있고, 생명력이 사라진 해골의 무언가가 갑자기 오싷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이 그런 해골에 닿는 것이 싫었다. “안돼.” 케이트는 말했다. “아직 표백이 덜 되었단다. 내일이면 될 거야.”

이머는 아침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윽고 아래층에 내려온 이머의 모습을 보니 파벨과 다뤘다는 것이 티가 났다. 그녀는 머그

잔에 커피를 담아 콜먼의 코트를 어깨에 두른 채 밖으로 나가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정원 가장자리에 있는 금속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전화를 했다.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 창문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걷고, 핸드폰을 귀에 댄 채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이머는 부엌으로 가지 않고 홀에서 소리쳤다. “오선, 가서 코트 가져오렴. 차 타고 나갈거야.”

오선과 파벨은 식탁 의자에 앉아 테이토 상자 안에 든 물건들로 놀이를 하던 중이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이룬차 모형과 병정 인형들이 징집되고, 지그소 퍼즐을 하나하나 쌓아 높은 탑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오늘 오선은 우리랑 있는 줄 알았는데.” 케이트가 말했다.

이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저랑 나갈 거예요. 재는 갤러리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내가 차로 데려다줄게.” 파벨이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다.

“됐어. 내가 운전할 거야.”

“그 차 운전하는 거 익숙하지 않잖아.” 파벨이 말했다. “내가 자기 친구들을 만날 필요는 없으니 그냥 내려만 주고 올게. 그리고 끝나면 다시 데리러 갈게.”

“됐어. 그냥 걸어 올래.” 이머가 말했다.

“냅두게.” 콜먼이 혼잣말 하듯 말했다. “걸어 다니는 데는 선수니까.” 콜먼은 십자 드라이버로 고장난 토스터를 분해하고, 분해된 부품을 안락의자 옆 마룻바닥 위에 올려 두었다. 그는 곧 드라이버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내 차로 데려다주마.” 그가 말했다. 그는 오션에게 고객을 끄덕이며 말했다. “자, 가자꾸나.” 그리고 별다른 말없이 부엌에서 나갔다. 오션은 놀이를 그만두고 할아버지 뒤를 따라 홀을 종종 가로질러갔다. 아이는 주머니에 양 손을 넣고 과장되게 큰 보폭으로 걸으며 할아버지의 걸음걸이를 따라하고 있었다. 이머는 케이트에게 형식적으로 키스한 다음 둘을 따라 나섰다.

그들이 나가자 파벨은 일이 있어 나가보겠다고 케이트에게 양해를 구했다. “저는 좋은 말

동무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그가 위층으로 올라간 뒤 케이트는 집안일을 하고,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고, 빨래를 겹다. 혹시나 파벨이 일하는 데 방해가 될까 봐 진공청소기를 돌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파벨이 뭐하는 사람일까 궁금했다. 처음에는 건축가 같아 보였는데 다시 보니 엔지니어 같기도 했다. 그녀는 가드닝 장갑을 끼고 거름을 만들 쓰레기를 밖에 내놓았다. 정원은 엉망진창이었다. 겨우내 거친 바람에 쓸려온 부러진 나뭇가지, 솔방울 등이 집 앞 정원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몇 년 전 한 남자가 집집마다 돌며 항공사진을 판매하던 것이 생각났다. 그는 케이트에게 하늘에서 바라본 케이트의 집과 집 부근 숲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하늘에서 본 숲이 완전한 정사각형 모양이라는 것, 마치 삼각자를 대고 그린 것처럼 정사각형 네 변이 곧고 선과 선이 만나는 각도가 정확하게 직각을 이루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

정오가 지나고 오후가 되었다. 그녀는 위층에서 파벨이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리나 살폈

지만 집은 그저 고요했다. 그녀는 파벨에게 점심을 권하려고 위층에 올라갔다. 방문을 노크하자, 침대 매트리스의 스프링이 삐걱대는 소리와 방바닥을 가로지르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가 방문을 열자, 침대 위에 종이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이 보였다. 흑백의 조면도경에 부분부분 파란 잉크로 그은 평행선이 그려져 있었다. ‘역시 건축가가 맞았어.’ 케이트는 생각했다. “식탁에서 해도 되는데.” 그녀가 말했다. “전혀 몰랐네요.”

“괜찮습니다.” 파벨이 말했다. “아무데서나 해도 돼요. 어차피 다 끝났고요.”

그녀는 샌드위치를 방으로 갖다 주겠다고 말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전혀 다른 말이 나왔다. “산책 가려고 하는데 생각 있으면 같이 가요.”

“좋습니다.” 파벨이 말했다.

케이트는 부츠를 신고 헛간에서 다른 부츠를 찾아 파벨에게 빌려주었다. 그들은 평지 지름길로 가지 않고 차도 끝에서 길을 건넌 뒤 관목지를 둘러싸고 있는 오래된 숲길을 택했다.

허물어진 오두막 판자들이 쌓인 곳을 지나던 파벨이 말했다. “오늘 아침 남편 분께서 나무를 베고 계시는 걸 봤어요. 나이에 비해 몸이 굉장히 좋으시던데요.”

“맞아요.” 케이트가 말했다. “건강한 사람이예요.”

“꽤 젊었을 때 결혼하셨나 봅니다.”

“23살 때였어요.” 그녀가 말했다. “꼬마 신부라 할 정도로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요즘 기준으로 보면 어린 나이였죠.”

그들은 숲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도착했다. 총기와 불 사용을 금지한다는 팻말이 나무에 못으로 박혀 있었는데, 글자가 절반은 지워져 있었다. 파벨이 입구에서 우물쭈물하자 케이트가 먼저 숲으로 들어갔다. 잔디가 난 숲길에는 솔잎이 어지럽게 떨어져 있었다. 케이트는 파벨이 따라올 수 있도록 속도를 늦췄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비 때문에 땅이 물러져 걸을 때마다 발이 땅에 푹푹 빠졌다. 그들은 늘어진 나뭇가지를 이리저리 피하며 좌우로 줄지어 선 나무들이 보이는 가운데 숲길로 계속

걸어갔다. 그러다 기저귀, 달걀 껍질, 은박지 상자 같은 생활 쓰레기를 담은 봉지가 바닥에 엎어져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파벨이 말했다.

“인근 주민일거예요.” 케이트가 대답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야심한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거죠.” 마치 파열된 복부에서 흘러나온 창자를 주워담으려는 외과의사 처럼, 파벨은 무기력한 손길로 찢어진 봉지에 쓰레기를 주워담았다. 쓰레기를 줍고 일어난 그의 손에는 흙과 솔잎이 잔뜩 묻어 있었다. 케이트는 코트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건네 주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그가 물었다.

“입구에서만 그래요.” 케이트가 말했다. “사람들이 게으르거든요.” 파벨은 손을 닦고 난 손수건을 어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눈치였다. “다시 안 줘도 돼요.” 케이트가 이렇게 말하자, 파벨은 빙그레 웃으며 손수건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숲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조용해졌

다. 새소리도 적고, 동물들이 덤불 속에 숨어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적게 들렸다. 파벨은 런던 생활과 그의 직장 이야기를 했고, 케이트는 도시에서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 온 일, 아이들의 어린 시절, 일본에 가 있는 존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파벨이 눈에 띄게 다리를 저는 것을 보고 속도를 늦추었다.

“방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가 말했다.

“전혀요.”

“감동했거든요.” 그가 말했다. “특히 곰돌이 이불이랑 토끼 인형이 마음에 들었어요.”

파벨의 표정에 장난기가 엿보였다. 케이트는 웃음을 터뜨렸다.

“따님이 저 오는 거 말씀 안 드렸죠?”

“네, 하지만 상관없어요.”

“괜히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어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남편 분께서 언짢아 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이는 이머 때문에 언짢은 거예요.” 케이트가 말했다. “그쪽 때문이 아니라요. 어쨌든 상관

없어요.”

파벨이 피곤해 하는 것을 본 케이트는 땅에 쓰러져 있는 나무를 발견하고 잠시 쉬기로 했다. 두 사람은 나무 몸통 위에 나란히 앉았다. 케이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위를 바라보았다. 하늘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은 볼 수 있었다. 나무를 타고 켄켄이 내려오는 빛이 노란색과 녹색을 머금고 있었다. 태양빛을 받은 나뭇잎의 아랫면이 보였다. 나뭇잎은 마치 태피스트리(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 - 옹기)처럼 녹색과 흰색의 잎맥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의 발 밑에는 독버섯과 갈색 먼지버섯 군집이 펼쳐져 있었다. 파벨이 발로 버섯을 건드리자, 툭 쏘는 냄새의 포자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그 모습이 신기한지 파벨은 몸을 숙이고 손가락으로 버섯을 쿡쿡 찔렀고, 더 많은 포자가 공기 중에 퍼졌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지난 4년동안 오싹을 딱 세 번 봤어요.” 케이트가 말했다.

“내일 이머랑 다시 런던으로 돌아갈 텐데, 생

각만 해도 서운해요.”

파벨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케이트에게 다가 그녀를 손을 잡았다. “유감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머가 여기처럼 좋은 곳을 두고 왜 다른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 아이에게 나는 낯선 사람일 뿐이에요.” 케이트가 말했다. “할머니인 내가 낯선 존재라고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랄 거예요.”

“그 아인 벌써 다 알아요. 다 기억할 거예요.”

“통 속에 든 그 망할 해골 바가지만 기억하겠죠.” 케이트는 씩씩하게 말했다.

파벨은 그녀의 손바닥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케이트는 그에게서 손을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그에게 등을 보이고 서서, 주된 숲길과 직각을 이루고 있는 어두운 색의 나무 터널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기가 지름길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저기로 가면 집 앞 차도가 나와요. 아이들이 어릴 때 자주 가던 길이라 기억해요.”

지름길은 다니는 사람이 적은 탓에 제멋대

로 자란 목초가 어지럽게 엉켜 있었고, 땅 위에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무에 걸쳐 숲길 위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나무들이 곳곳에서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키 큰 양치류 식물이 구불구불 자라고, 나무 몸통에 두꺼운 이끼 층이 자라고 있었다. 주변이 워낙 조용해 진흙 땅을 밟을 때마다 케이트의 귀에 나뭇잎의 잎맥이 꺾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들은 양손을 늘어뜨린 채, 까딱하면 서로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걸었다. 숲길이 끝나자 차도가 나타나고, 그들은 아무 말없이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때 차도에 콜먼의 차가 들어서서 소리가 들렸다.

콜먼, 이머, 오션 모두 집으로 돌아왔다. 이머는 집을 나설 때와 기분이 사뭇 달라 보였다. 종종 그녀에게 찾아볼 수 있는, 부산스러운 활력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오래 전 대학교 전시회 카탈로그를 찾으려고 거실에 있는 수납장 서랍을 열고 서랍 안에 있는 물건을 카페트 바닥에 모조리 쏟았다. 오션은 콜먼이 사준 새 장난감 트럭을 갖고 놀고 있었다. 바퀴 네 개가

모두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계단 아래 상자에 들어있던 트럭과 아주 비슷한 모양새였다. 오션이 부엌 바닥에 앉아 타일 위에 트럭을 대고 앞뒤로 움직이자 웅웅 모터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콜먼은 기분이 좀 누그러져 보였다. 그는 그가 평소 마시는 차 대신 케이트가 좋아하는 레몬 생강차를 한 주전자 가득 만들어 케이트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커크 선장(터키인을 의미하는 영국 코크니언어 - 율긴이)하고는 잘 지냈고?”

“그럭저럭요.” 케이트가 대답했다.

거실에서 카탈로그를 찾은 이머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주전자에서 차를 따라 창 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파벨은 정원 뒤쪽에서 풍력 터빈 사진을 찍고 있었다. “저거 보면 뭐 생각나는지 아세요?” 이머가 말했다. “존이 유리병으로 왕벌 잡던 거가 생각나요. 존이 벌을 잡아서 배에 꼬챙이를 끼우고 그 꼬챙이를 땅에 세워 뒀어요. 그럼 벌이 막 미친듯이 날개를 퍼덕이는데, 그걸 다같이 지켜보곤 했죠.”

“이머!” 케이트가 말했다. “존은 살아있는 왕

별로 그런 장난을 친 적은 없어.”

이머가 창문에서 몸을 돌리더니 피식하고 웃었다.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머가 말했다. “우리 존은 성인군자인데 말이예요.” 그녀는 마시다 남은 차를 싱크대에 버리며 말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왕벌들은 살아있었어요. 적어도 꼬챙이에 끼웠을 때는 말이죠.”

오션은 바닥에서 일어나 손에 새 장난감 트럭을 쥐고 엄마에게 다가갔다. “레이저건 못 갖고 가면 대신 이 트럭은 가져가도 돼요?” 아이가 말했다.

“그럼, 그럼.” 이머가 말했다. “거실에 가서 내 라이터 좀 가져다 주겠니?” 그녀는 아이에게 어서 나가보라고 손을 내저었다.

아이는 가다 말고 멈춰 서더니 손에 쥔 트럭을 바라보았다. “아니면 레이저건을 가져가고 레고는 두고 갈래요.” 아이가 말했다. “호주에는 레고가 엄청 많을지도 몰라요.”

“호주?” 케이트가 말했다. 그녀는 건너편에 앉은 콜먼을 쳐다보았다. 콜먼은 아무 말없이 차 찌꺼기를 빙빙 돌리며 찻잔 안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이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죄송해요, 엄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어차피 호주에서 계속 살 것도 아니고, 호주 가려면 아직 여름까진 있어야 돼요.”

그날 밤, 케이트는 침대에서 울기 시작했다. 콜먼은 램프 불을 켜고, 케이트의 얼굴을 마주보고 돌아누웠다. “개가 어떤지 당신도 잘 알잖아.” 그가 말했다. “어디 한 곳에 진득하게 있어본 적이 있어야지. 호주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말을 꺼낼 수 있을 만큼 가까스로 진정한 그녀가 말했다. “호주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죠.”

케이트는 콜먼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남편의 체취, 남편에게 느껴지는 감촉, 남편과 그녀의 몸이 꼭 들어맞는 느낌이 그녀가 기억하던 그대로였다. 그녀는 남편 위로 올라가 몸을 나란히 포갠 뒤, 그의 잠옷 단추를 푸르고 뺨뺨한 털이 난 그의 가슴 위에 머리를 얹었다. 콜먼은 케이트를 지켜보며 잠옷 위로 어색하게 등을 토

닥였다.

그녀는 남편의 입에, 목에 차례로 키스하고 잠옷 단추를 모두 푸른 후, 그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는 딱히 반응하지도, 밀쳐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의 잠옷바지 허리 밴드 아래로 손을 넣었다. 그가 케이트의 등을 토닥이던 손을 멈췄다. 그는 케이트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고 손을 바지 밖으로 꺼냈다. 그리고 아래 있던 몸을 빼낸 다음 벽을 보고 돌아누웠다.

케이트는 배까지 말려 올라간 잠옷을 무릎 아래로 끌어내렸다. 그녀는 그녀의 침대 쪽으로 슬금슬금 돌아가 천장을 보고 가만히 누웠다. 집은 적막했다. 어젯밤 들리던 소리 중 그 무엇도 들리지 않았다. 콜먼이 옷을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렸다. 케이트는 결눈질로 그가 잠옷 단추를 다시 채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램프를 끈 뒤 한 30분 정도 지나자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케이트는 자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이면 오션, 이머, 파벨은 다시 런던으로 돌아간다. 오션은 그 동물 해골을 가져가고 싶어할 것이다. 그녀는 오션이 어

제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해골을 보러 다용도실에 숨어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다리를 앞뒤로 흔들다가, 맨 발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전화기 탁자 위에 놓인 램프—콜먼이 쓰던 나무 램프로 붉은색 전등갓이 씩뿔져 있었다—가 거실에 은은한 장밋빛을 드리우고 있었다. 고양이가 케이트의 발목을 스치며 다가오더니 야옹거리며 그녀에게 몸을 비볐다. “안자고 뭐하니?” 그녀는 몸을 굽히고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왜 여기 나와있어?” 고양이가 자는 바구니를 둔 거실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귀를 기울이자 거실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고양이는 케이트의 다리에 몸을 둥글게 말았다 풀었다 하더니, 갑자기 거실에 쏜살같이 들어갔다 나오며 불평불만이 있다는 듯 작은 소리를 냈다. 거실로 발을 옮긴 케이트는 홀에서 비치는 빛에 의지해 소파에 흐릿한 형체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파벨이 바닥 깔개를 덮고, 쿠션을 베개 삼아 누워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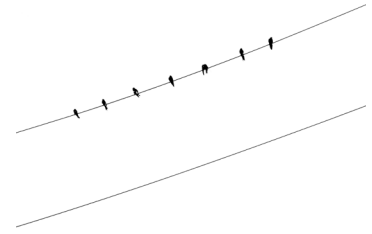
파벨이 일어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안경을

찾아 썼다. 그는 마치 자다 깬 사람처럼 혼란스러워 보였으나,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케이트라는 것을 알자 곧 표정이 바뀌었다. “케이트.” 그가 말했다. 방이 어둑어둑했지만, 케이트는 그가 얇은 잠옷을 입은 그녀의 몸을 눈으로 훑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집은 쥐죽은듯 고요했다. 고양이는 케이트의 발 옆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파벨은 아무 말없이 계속 케이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꿈쩍 않고 있었다. 케이트는 파벨이 자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녀는 거실에서 나와 홀을 지나 부엌으로 갔다. 고양이가 그녀 옆을 졸졸 따라갔다.

다용도실로 간 케이트는 고무장갑을 끼고 통 속에서 해골을 꺼내 들었다. 바닥에 표백제가 푹푹 떨어지자 그녀는 수건을 가지고 와 바닥을 닦고, 해골의 눈구멍 주변과 턱뼈의 틈새도 수건으로 문질러 닦았다. 그녀는 세탁기 위에 앉아 해골을 빤히 쳐다보았다. 해골이 동굴처럼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녀는 겉옷도 입지 않은 채 콜먼의 웰링턴 부츠만 신

고 밖으로 표백제 통을 들고 나갔다.

잠옷바람으로 나온 케이트는 늦서리가 내릴 법한 추위에 몸을 벌벌 떨었다. 집 뒤편에 쌓아둔 갓 베어낸 장작 더미가 달빛 아래 희게 빛나고 있었다. 달빛은 데너히네 집 금속 지붕 위에서 반짝이고, 숲 속에 있는 나무 꼭대기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케이트는 통을 기울여 표백제를 바닥에 전부 쏟았다. 표백제는 표면에 잠시 고여 있다 서서히 땅에 스며들었고, 곧 곤충 사체들만 자갈 위에 반점처럼 남았다. 케이트는 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가 소녀시절부터 보아온 익숙한 모습의 별자리, 수백만개의 별들이 하늘에 수놓아져 있었다. 지구에서 바라보면 별들은 정지된 상태의 차갑고 아름다운 존재처럼 보이지만, 케이트는 별들이 항상 움직이고 있으며 별과 별이 중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다. 백열 상태의 먼지와 가스 구름으로 만들어진 별, 그것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눈부신 빛 때문에 눈을 멀게 만들 수도 있는 존재였다.



From the fence behind the house, Kate could see her husband up at the old forestry hut where mottled scrubland gave way to dense lines of trees. “Colman!” she called, but he didn’t hear. She watched him swing the axe in a clean arc and thought, from this distance, he could be any age. Lately, she’d found herself wondering what he’d been like as a very young man, a man of twenty. She hadn’t known him then, he had already turned forty when they met.

It was early April, the fields and ditches coming green again after winter. Grass verges crept outwards, thickening the arteries of narrow lanes. “There’s nothing wrong,” she shouted when she was still some yards off. He was in his shirtsleeves, his coat discarded on the grass beside him. “Emer rang from London, she’s coming home.”

He put down the axe. “Home for a visit, or home for good?” He had dismantled the front of the hut and one of the side walls.

The frame of the old awning lay on the grass, remnants of green canvas still wound around a metal pole. On the floor inside, if floor was the word, she saw empty beer cans, blankets, a ball of blackened tinfoil.

“Just for a few days. A friend from college has an exhibition. I wasn’t given much detail, you know Emer.”

“Yes,” he said, and frowned. “When is she arriving?”

“Tomorrow evening, and she’s bringing Oisín.”

“Tomorrow? And she’s only after ringing now?”

“It’ll be good to have them stay. Oisín has started school since we last saw him.” She waited to see if he might mention the room, but he picked up the axe, as if impatient to get back to work.

“What will we do if the Forestry Service come round?” she said.

“They haven’t come round this past year. They don’t come round when we ring about the drinking or the fires.” He swung the axe at a timber beam supporting what was left of the roof. There was a loud splintering but the beam stood firm, and he drew back the axe, prepared to strike again.

She turned and walked toward the house.

The Dennehy’s, their nearest neighbours, had earlier that week sown maize, and a crow hung from a pole, strung up by a piece of twine. It lifted in the wind as she walked past, coming to rest again a few feet from the ground, above the height of foxes. When they first moved here, she hadn’t understood that the crows were real, shot specially for the purpose, and had asked Mrs Dennehy what cloth she sewed them from, while the Dennehy’s two sons, then just young boys, sniggered behind their mother’s back.

After supper, she took the duvet cover with the blue teddy bears from the hot press and spread it out on the kitchen table. The cat roused itself from the rug by the stove, and went over to investigate. It bounded in one quick movement onto a chair and watched, its head to one side, as she smoothed out creases. There were matching pillowcases, and a yellow pyjama holder in the shape of a rabbit. Colman was at the other side of the kitchen, making a mug of Bovril. “What do you think?” she said.

“Lovely.”

“You couldn’t possibly see from that distance,” she said.

“It’s the same one as before, isn’t it?”

“Well, yes,” she said, “but it’s a while since

they visited. I'm wondering is it a bit babyish?"

"You're not going to find another between now and tomorrow," he said, and she felt the flutter in her eyelid start up, the one that usually preceded a headache. She had hoped the sight of the duvet cover might have prompted an offer to move his stuff, or at least an offer to vacate the room so that she could move it. "It'll be an improvement on that brown eider-down, anyway," she said, "John was still at school when we bought that," but he just drank back his Bovril and rinsed the mug, setting it upside-down on the draining board. "Goodnight," he said, and went upstairs. The cat jumped down from the chair, and padded back across the kitchen to resume its position on the rug.

Next morning, she started with his suits. She waited until he'd gone outside, then carried them from John's old room to their bedroom across the landing. The wardrobe had held everything once, but now when she pushed her coats and dresses along the rail, they resisted, swung back at her, jostling and shouldering, as if they'd been

breeding and fattening this past year. For an hour she went back and forth between the rooms with clothes, shoes, books. The winter before last, Colman had brought the lathe—a retirement gift from the staff at the Co-op—in from the shed and had set it up in their son's room. He would turn wood late into the night and often, when she put her head around the door in the morning, she would find him, still in his clothes, asleep on John's old single bed. There began then the gradual migration of his belongings. He appeared to have lost interest in the lathe—he no longer presented her with lamps or bowls—but for the best part of a year, he had not slept in their bedroom at all.

Colman had allowed junk to accumulate—magazines, spent batteries, a cracked mug on the window sill—and she got a sack and went around the room, picking things up. The lathe and woodturning tools—chisels, gouges, knives—were on a desk in the corner, and she packed them away in a box. She put aside Colman's pyjamas, and dressed the bed with fresh linen, the blue teddy bears jolly on the duvet, the rabbit propped on a chair alongside. Standing back to admire it, she noticed Colman in the doorway. He had his hands on his hips and was star-

ing at the sack.

“I haven’t thrown anything out,” she said.

“Why can’t the child sleep in the other room?” He went over to the sack, dipped a hand in, and took out a battery.

“Emer’s room? Because Emer will be sleeping there.”

“Can’t he sleep there too?”

She watched him drop the battery back into the sack and root around, a look of expectancy on his face, like a boy playing lucky dip. He brought out the cracked mug, polished it on his trousers, and then, to her exasperation, put it back on the window sill.

“He’s six,” she said. “He’s not a baby anymore. I want things to be special; we see so little of him.” It was true, she thought, it was not a lie. And then, because he was staring at her, she said, “and I don’t want Emer asking about...” She paused, spread her arms wide to encompass the room. “About this...” For a moment he looked as if he was going to challenge her. It would be like him, she thought, to decide to have this conversation today, today of all days, when he wouldn’t have it all year. But he picked up his pyjamas and a pair of shoes she had missed beneath the bed and, saying nothing, headed off across the landing. Later, she found

his pyjamas folded neatly on the pillow on his side of the bed, where he always used to keep them.

Colman was on the phone in the hall when the car pulled up in front of the house. Kate hurried out to greet them and was surprised to see a man in the driver’s seat. Emer was in the passenger seat, her hair blacker and shorter than Kate remembered. “Hi Mam,” she said, getting out and kissing her mother. She wore a red tunic, the bosom laced up with ribbon like a folk costume, and black trousers tucked into red boots. She opened the back door of the car and the child jumped out. He was small for six, pale and sandy haired, blinking, though the day was not particularly bright.

“Say hi to your Granny,” Emer said, and she pushed him forward.

Kate felt tears coming, and she hugged the child close and shut her eyes, so as not to confuse him. “Goodness,” she said, stepping back to get a better look, “you’re getting more and more like your Uncle John.” The boy stared at her blankly with huge grey-green eyes. She ruffled his hair. “You wouldn’t remember him,” she said, “he lives in Japan now. You were very small when you met him, just a baby.”

The driver's door opened and the man got out. He was slight and sallow-skinned, in a navy sports jacket and round, dark-rimmed glasses. One foot dragged slightly as he came round the side of the car, ploughing a shallow furrow in the gravel. Kate had been harbouring a hope that he was the driver, that at any moment Emer would take out her purse and pay him, but he put a hand on her daughter's shoulder and she watched Emer turn her head to nuzzle his fingers. He was not quite twice her daughter's age, but he was close, late forties, she guessed. The cat had accompanied her outside and now it rubbed against her legs, its back arched, its tail working to and fro. Kate waited for her daughter to make the introductions, but Emer had turned her attention to Oisín who was struggling with the zip of his hoodie. "Pavel," the man said and, stepping forward, he shook her hand. Then he opened the boot and took out two suitcases.

"I'll give you a hand with those," Colman said, appearing at the front door. He wrested both cases from Pavel, and carried them into the house, striding halfway down the hall before coming to a halt. He put the suitcases down beside the telephone table,

and stood with his hands in his pockets. The others stopped too, formed a tentative circle at the bottom of the stairs.

"Oisín," Emer said, "say hello to your Grandad. He's going to take you hunting in the forest."

The boy's eyes widened. "Bears?" he said.

"No bears," Colman said, "but we might get a fox or two."

Pavel shuffled his feet on the carpet. "Oh, Daddy," Emer said, as if she'd just remembered, "this is Pavel." Pavel held out a hand and Colman delayed for a second before taking it. "Pleased to meet you," he said, and he lifted the cases again. "I'll show you to your rooms."

Kate remained in the hall and watched them climb the stairs, Colman in front, his steps long and rangy, the others following behind. Pavel was new, she thought; the child was shy with him, sticking close to his mother, one hand clutching the skirt of her tunic. Colman set a suitcase down outside Emer's bedroom. He pushed open the door, and from the foot of the stairs, Kate watched her daughter and grandson disappear into the garish, cluttered room, its walls hung with canvasses Emer had painted during her Goth phase. Colman carried the other

suitcase to John's room. "And this is your room," she heard him say to Pavel, as she went into the kitchen to make tea.

"How long is he on the scene?" Colman said, when he came back downstairs.

"Don't look at me like that," she said, "I don't know any more than you do."

He sat at the table, drumming his fingers on the oil-cloth. "What class of a name is Pavel, anyway?" he said. "Is it Eastern European or what? Is it Lithuanian? What is it?"

She debated taking out the china, but deciding it was old fashioned, went for the pottery mugs instead. "I expect we'll hear later," she said, arranging biscuits on a plate.

"She shouldn't have landed him in on top of us like this, with no warning."

"No," she said, "she shouldn't have."

She found the plastic beaker she'd bought for their last visit. It was two Christmases ago and the mug was decorated with puffy-chested robins and snowflakes. She polished it with a tea towel and put it on the table. "Everytime I see Oisín," she said, "he reminds me of John. Even when he was a small baby in his pram he looked like John. I must get down the photo album and show Emer."

Colman wasn't listening. "Are we supposed to ask about the other fellow at all

now?" he said. "Or are we supposed to say nothing?"

Her eyelid was fluttering so fiercely she had to press her palm flat against her eye in an effort to still it. "If you mean Oisín's father," she said, "don't mention him, unless Emer mentions him first." She took her hand away from her face and saw her grandson standing in the doorway. "Oisín!" she said, and she went over, laid a hand on his soft, fine hair. "Come and have a biscuit." She offered the plate, and watched him survey the contents, his fingers hovering above the biscuits but not quite touching. He finally selected a chocolate one shaped like a star. He took a small, careful bite and chewed slowly, eyeing her the way he had eyed the biscuits, making an assessment. She smiled. "Why don't you sit here and tell us all about the airplane?" She pulled out two chairs, one for the child, one for herself, but the boy went around the other side of the table and sat next to Colman.

He had finished the biscuit, and Colman pushed the plate closer to him. "Have another," he said. The boy chose again, more quickly this time. "Tell me," Colman said, "where's Pavel from?"

"Chelsea."

“What does he do?”

The boy shrugged, took another bite of biscuit.

“Colman,” Kate said sharply, “would you see if there’s some lemonade in the fridge?”

He looked at her the way the cat sometimes looked at her when she caught it sleeping on the sofa, a look at once both guilty and defiant, but he got up without saying anything and fetched the lemonade.

They heard footsteps on the stairs, and laughter, and Emer came into the kitchen with Pavel in tow. Opening the fridge, she took out a litre of milk and drank straight from the carton. She wiped her mouth with her hand and put the milk back. Pavel nodded to Kate and Colman—an easy, relaxed nod—but he didn’t join them at the table. Instead, he went over to a window that looked out on the garden and the scrubland and forest beyond. “They’re like gods, aren’t they?” he said, pointing to the three wind turbines rotating slowly on the mountain. “I feel I should take them a few dead chickens—kill a he-goat or something.”

His voice reminded Kate of a man who used to present a history programme on the BBC, but with the barest hint of something else, something melodic, a slight lengthen-

ing of vowels. “Don’t mention the war,” she said. “Those things have caused no end of trouble.”

“Perhaps not enough goats?” he said.

She smiled and was about to offer him tea, but Emer linked his arm. “We’re going to the pub,” she said, “just for the one, we won’t be long.” She blew Oisín a kiss. “Be good for your Granny and Grandad,” she said as they went out the door.

The boy sat quietly at the table, working his way through the biscuits. Kate remembered the board game she had found that morning and had left on the chair in the spare room. She thought about fetching it, but Pavel might notice it gone, would know she had been in the room in his absence. Oisín reached for another biscuit. “We could see if there are cartoons on television?” she said, “would you like that?”

Colman glared at her as if she had suggested sending the child down a mine. “Television will rot his brain,” he said. He leaned in to the boy. “Tell you what,” he said, “why don’t you and I go hunt those foxes?”

Immediately, the boy was climbing down off his chair, the biscuits and lemonade forgotten. “What will we do with the foxes

when we catch them?" he said.

"We'll worry about that when it happens," Colman said. He turned to Kate. "You didn't want to come, did you?"

"No," she said, "it's okay, I'd better make a start on dinner." She walked with them to the back porch, watched them go down the garden and scale the fence at the end. The boy's hair snagged as he squeezed beneath the barbed wire, and she knew if she went to the fence now she would find silky white strands left behind, like the locks of wool left by lambs. Dropping into the field on the other side, they made their way across the scrub, through grass and briars and wild saplings, Colman in front, the boy behind, almost running to keep up. The grass was in the first rush of spring growth. Come summer, it would be higher, higher than the boy's head and blonder, as it turned, unharvested, to hay. They reached the pile of timber that used to be the hut, and Colman stopped, bent to take something from the ground. He held it in the air with one hand, gesticulating with the other, then gave it to the boy. Goodness knows what he was showing the child, she thought, what rubbish they were picking up. Whatever the thing was, she saw the boy discard it in the

grass, and then they went onward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until they disappeared into the forest. She moved about the kitchen, preparing dinner, watering the geraniums in their pots on the window. She rinsed the plastic tumbler at the sink, and watched the sky change above the Dennehy's sheds, the familiar shiftings of light that marked the passing of the day.

An hour later her husband and grandson returned, clattering into the kitchen. Oisín's shoes and the ends of his trousers were covered in mud. He was carrying something, cradling it to his chest, and when she went to help him off with his shoes, she saw it was an animal skull. Colman went out to the utility room and rummaged around in the presses, knocking over pans and brushes, banging doors. "What are you looking for?" she said, but he disappeared outside to the yard. The boy remained in the kitchen, stroking the skull as if it were a kitten. It was yellowy-white and long-nosed with a broad forehead.

Colman returned with a plastic bucket and a five gallon drum of bleach. He took the skull from the boy and placed it in the

bucket, poured the bleach on top until it reached the rim. The boy looked on in awe. "Now," Colman said, "that'll clean up nicely. Leave it a couple of days and you'll see how white it is."

"Look," the boy said, grabbing Kate's hand and dragging her over, "we found a dinosaur skull."

"A sheep, more likely," his grandfather said, "a sheep that got caught in wire. The dinosaurs were killed by a meteorite millions of years ago."

Kate peered into the bucket. Little black things, flies perhaps, had already detached themselves from the skull and were floating loose. There was green around the eye sockets, and veins of mud grained deep in the bone.

"What's a meteorite?" the boy said.

The front door opened and they heard Emer and Pavel coming down the hall. "The child doesn't know what a meteorite is," Colman said, when they entered the kitchen.

Emer rolled her eyes at her mother. She sniffed, and wrinkled her nose. "It smells like a hospital in here," she said.

Pavel dropped to his haunches beside the bucket. "What's this?" he said.

"It's a dinosaur skull," Oisín said.

"So it is," Pavel said.

Kate waited for her husband to contradict him, but Colman had settled into an armchair in the corner, holding a newspaper, chest height, in front of him. She looked down at the top of Pavel's head, noticed how his hair had the faintest suggestion of a curl, how a tuft went its own way at the back. The scent of his shampoo was sharp and sweet and spiced, like an orange pomander. She looked away, out to the garden, and saw that the evening was fading. "I'm going to get some herbs," she said, "before it's too dark," and taking a scissors and a basket, she went outside. She cut parsley first, then thyme, brushing away small insects that crept over her hands, scolding the cat when it thrust its head in the basket. Inside the house, someone switched on the lights. From the dusk of the garden, she watched figures move about the kitchen, a series of family tableaux framed by floral-curtained windows: now Colman and Oisín, now Oisín and Emer, sometimes Emer and Pavel. Every so often, she heard a sudden burst of laughter.

Back inside, she found Colman, Oisín and Pavel gathered around a box on the table, an old cardboard Tayto box from beneath the stairs. She put the herbs in a colander

by the sink and went over to the table. Overhead, water rattled through the house's antiquated pipes: the sound of Emer running a bath. From the box, Colman took dusty school reports, a metal truck with its front wheels missing, a tin of toy soldiers. "Aha!" he said, "I knew we kept it." He lifted out a long cylinder of paper and tapped it playfully against the top of Oisín's head. "I'm going to show you what a meteorite looks like," he said.

She watched as Colman unfurled the paper and laid it flat on the table. It curled back into itself, and he reached for a couple of books from a nearby shelf, positioning them at the top and bottom to hold it in place. It was a poster, four feet long and two feet wide. "This here," Colman said, "is the asteroid belt." He traced a circular pattern in the middle of the poster and when he took away his hand, his fingertips were grey with dust.

Pavel moved aside to allow Kate a better view. She peered over her husband's shoulder into the vastness of space, a dazzling galaxy of stars and moons and dust. It was dizzying, the sheer scale of it: the unimaginable expanses of space and time, the vast, spinning universe. We are there, she

thought, if only we could see ourselves, we are there, and so are the Dennehy's, so is John in Japan. The poster had once hung in her son's bedroom. It was wrinkled, torn at the edges, but intact. She looked at the planets, pictured them spinning and turning all those years beneath the stairs, their moons in quiet orbit. She was reminded of a music box from childhood that she had happened upon years later in her mother's attic. She had undone the catch, lifted the lid and, miraculously, the little ballerina had begun to turn, the netting of her skirt torn and yellowed, but her arms moving in time to the music nonetheless.

"This is our man," Colman said, pointing to the top left-hand corner. "This is the fellow that did for the dinosaurs." The boy was on tiptoe, gazing in wonder at the poster. He touched a finger to the thing Colman had indicated, a flaming ball of rock trailing dust and comets. "Did it only hit planet Earth?"

"Yes," his grandfather said. "Wasn't that enough?"

"So there could still be dinosaurs on other planets?"

"No," Colman said, at exactly the same time Pavel said, "Very likely."

The boy turned to Pavel. "Really?"

"I don't see why not," Pavel said. "There are millions of other galaxies and billions of other planets. I bet there are lots of other dinosaurs. Maybe lots of other people too."

"Like aliens?" the boy said.

"Yes, aliens, if you want to call them that," Pavel said, "although they might be very like us."

Colman lifted the books from the ends of the poster, and it rolled back into itself with a slap of dust. He handed it to Oisín, then returned the rest of the things to the box, closing down the cardboard flaps. "Okay, sonny," he said, "let's put this back under the stairs," and the boy followed him out of the kitchen, the poster tucked under his arm like a musket.

After dinner that evening, Kate refused all offers of help. She sent everyone to the sitting room to play cards while she cleared the table and took the dishes to the sink. Three red lights shone down from the mountain, the night-time lights of the wind turbines, a warning to aircraft. She filled the sink with soapy water and watched the bubbles form psychedelic honeycombs, millions and millions of tiny domes, glittering on the dirty plates.

That night, their first to share a bed in almost a year, Colman undressed in front of her as if she wasn't there. He matter-of-factly removed his shirt and trousers, folded them on a chair, and put on his pyjamas. She found herself appraising his body as she might a stranger's. Here, without the backdrop of forest and mountain, without the axe in his hand, she saw that he was old, saw the way the muscles of his legs had wasted, and the grey of his chest hair, but she was not repulsed by any of these things, she simply noted them. She got her nightdress from under her pillow and began to unbutton her blouse. On the third button, she found she could go no further and went out to the bathroom to undress there. Her figure had not entirely deserted her. Her breasts when she cupped them were shrunken, but she was slim, and her legs, which she'd always been proud of, were still shapely. Thus far, age had not delivered its estrangement of skin from bone; her thighs and stomach were firm, with none of the sagginess, the falling away, that sometimes happened. She had not suffered the collapse that befell other women, rendering them unrecognisable as the girls they had been in their youth; though perhaps that was yet to

come, for she was still only fifty-two.

When she returned to the bedroom, Colman was reading a newspaper. She peeled back the duvet on her side and got into bed. He glanced in her direction, but continued to read. It was quiet in the room, only the rattle of the newspaper, a dog barking somewhere on the mountain. She read a few pages of a novel but couldn't concentrate.

"I thought I might take the boy fishing tomorrow," he said.

She put down her book. "I don't know if that's a good idea," she said. "He's had a busy day today. I was thinking of driving to town, taking him to the cinema."

"He can go to the cinema in London."

"We'll see tomorrow," she said, and took up her book again.

Colman put away the newspaper and switched off the lamp on his side. He settled his head on the pillow, but immediately sat up again, plumping the pillow, turning it over, until he had it to his liking. She switched off the other lamp, lay there in the dark, careful where she placed her legs, her arms, readjusting to the space available to her. A door opened and closed, she heard footsteps on the landing, then another door, opening, closing. After a while she heard

small, muffled noises, then a repetitive thudding, a headboard against a wall. The sound would be heard too in Emer's old bedroom, where the boy was now alone. She thought of him waking in the night among those peculiar paintings, dozens of ravens with elongated necks, strange hybrid creatures, half-bird, half-human. She imagined specks of paint coming loose, falling in a black ash upon the boy as he slept. Colman was curled away from her, facing the wall. She looked at him as the thudding grew louder. He was utterly quiet, so quiet she could barely discern the sound of his breathing, and she knew immediately he was awake, for throughout their marriage he had always been a noisy sleeper.

As soon as she reached the bottom of the stairs the next morning, she knew she was not the first up. It was as if someone else had cut through this air before her, had broken the invisible membrane that formed during the night. From the utility room, she heard the high, excited babble of the boy. He was in his pyjamas, crouched beside the bucket of bleach, and beside him, in jeans and a shirt, his hair still wet from the show-

er, was Pavel. Oisín pointed excitedly to something in the bucket. In the pool of an eye socket, something was floating, something small and white and chubby.

Kate bent to take a look. Her arm brushed against Pavel's shoulder, but he did not move away, or shift position, and they remained like that, barely touching, staring into the bucket. The white thing was a maggot, its ridged belly white and bloated. Oisín looked from Pavel to Kate. "Can I pick it up?" he said.

"No!" they both said in unison, and Kate laughed. She felt her face redden and she straightened up, took a step back from the bucket. Pavel stood up too, ran a hand through his wet hair. The boy continued to watch the maggot, mesmerised. He was so close that his breath created ripples, his fringe flopping forward over his face, almost trailing in the bleach. "Okay," Kate said, "that's enough," and taking him by the elbow, she lifted him gently to his feet.

"Can I take the skull out?" he said.

Pavel shrugged, and glanced at Kate. He seemed downcast this morning, she thought, quieter in himself. She looked down at the skull, and at the debris that had floated free of it, and something about it, the

emptiness, the lifelessness, appalled her, and suddenly she couldn't bear the idea of the boy's small hands touching it. "No," she said, "it's not ready yet. Maybe tomorrow."

Emer didn't appear for breakfast and when finally she arrived downstairs, it was clear that there had been a row.

She made a mug of coffee and, draping one of her father's coats around her shoulders, went outside to drink it. She sat on the metal bench at the edge of the garden, smoking and talking on her phone. Every so often, she'd jump to her feet and pace up and down past the kitchen window, the phone to her ear, talking loudly. When she came back in, she didn't go into the kitchen, but called from the hall: "Get your coat, Oisín. We're going in the car."

Oisín and Pavel were at the table, playing with the contents of the Tayto box. The two-wheeled truck had been commandeered for a war effort involving the soldiers and a tower built from jigsaw pieces stacked one on top of the other. "I thought Oisín was staying with us," Kate said.

Emer shook her head. "Nope," she said, "he's coming with me. He likes galleries."

"I'll drive you," Pavel said quietly, getting up from the table.

“No, thank you, I can manage.”

“You’re not used to that car,” he said. “I don’t have to meet your friends, I can drop you off and collect you later.”

“I’d rather walk,” Emer said.

“Listen to her,” Colman said, to no one in particular, “the great walker.” He had a screwdriver and was taking apart a broken toaster, setting the pieces out on the floor beside his armchair. He put down the screwdriver, sighed and stood up. “We’ll go in my car,” he said. He nodded to Oisín, “Come on, sonny,” and without saying more he left the kitchen. The boy immediately abandoned his game and trotted down the hall after his grandfather. Already he had adopted his walk, a comically exaggerated stride, his hands stuck deep in his pockets. Emer gave her mother a perfunctory kiss and followed them.

After they left, Pavel excused himself, saying he had work to do. “I’m afraid I’m poor company,” he said. He went upstairs, and Kate busied herself with everyday jobs, feeding the cat, folding laundry, though she didn’t vacuum in case she disturbed him. She wondered what he did for a living and imagined him first as an architect then as an engineer of some sort. She put on her

gardening gloves and took the waste outside for composting. The garden was a mess. Winter had left behind broken branches, pine cones and other storm wreckage, the forest’s creeping advance. She remembered how years ago a man had come selling aerial photographs door to door. He had shown her a photo of their house and, next to it, the forest. And she had been astonished to see that, from the air, the forest was a perfect rectangle, as if it had been drawn with a set square, all sharp angles and clean lines.

Noon passed and the day moved into early afternoon. She listened for the sound of him moving about the room overhead, but everything was quiet. Eventually, she went upstairs to see if he would like some lunch. She knocked and heard the creak of bed springs, then footsteps crossing the floor. When he opened the door, she saw papers spread across the bed, black-and-white streetscapes with sections hatched in blue ink, and thought, Yes, an architect after all. “You could have used the dining room table,” she said, “I didn’t think.”

“It’s fine,” he said, “I can work anywhere. I’m finished now anyway.”

She had intended asking if she could bring him up a sandwich, but instead heard herself

say, "I'm going for a walk if you'd like to join me."

"I'd love to," he said.

She put on her own boots and found a pair for him in the shed. They didn't take the short cut through the field, but crossed the road at the end of the driveway, and followed an old forestry path that skirted the scrub. Passing the pyre of timber that was once the hut, he said: "I saw your husband chopping firewood this morning. He's a remarkably fit man for his age."

"Yes," she said, "he was always strong."

"You must have been very young when you married."

"I was 23," she said, "hardly a child bride, but young by today's reckoning, I suppose."

They arrived at an opening into the forest. A sign forbidding guns and fires was nailed to a tree, half of the letters missing. He hesitated, and she walked on ahead, down a grassy path littered with pine needles. She slowed to allow him catch up and they walked side by side, their boots sinking into the ground, soft from recent rain. Ducking now and again to avoid branches, they kept to the centre path, looking left and right down long tunnels of trees. They stopped at a sack of household waste—nap-

pies, eggshells, foil cartons, spilling over the forest floor.

"Who would do such a thing?" Pavel said.

"A local, most likely," she said, "they come here at night when they know they won't be seen." Pavel tried to gather the rubbish back into the bag, a hopelessly ineffective gesture, like a surgeon attempting to heap intestines back into a ruptured abdomen. When he stood up, his hands were covered in dirt and pine needles. She took a handkerchief from her coat pocket and handed it to him.

"Does it happen a lot?" he said.

"Only close to the entrance," she said, "people are lazy." He had finished with the handkerchief and seemed unsure what to do with it. "I don't want it back," she said, and grinning, he put it in his own pocket.

It was quieter the farther in they went, fewer birds, the occasional rustle of an unseen animal in the undergrowth. He talked about London and about his work, and she talked about moving from the city, the years when the children were young, John in Japan. She noticed his limp becoming more pronounced and slowed her pace.

"Thanks for going to such trouble with the room," he said.

“It was no trouble.”

“I was touched by it,” he said, “especially the bear duvet and the rabbit.”

She glanced at him, and saw that he was teasing. She laughed.

“She didn’t tell you I was coming, did she?” he said.

“No, but it doesn’t matter.”

“I’m sorry it caused awkwardness,” he said. “I know your husband is annoyed.”

“He’s annoyed with Emer,” she said, “not with you. Anyway, it doesn’t matter.”

She sensed he was tiring and when they came to a fallen tree, she sat on the trunk and he sat beside her. She tilted her head back and looked up. Here there was no sky, but there was light, and as it travelled down through the trees, it seemed to absorb hues of yellow and green. She saw the undersides of leaves, illuminated from above, and their tapestries of green and white veins. A colony of toadstools, brown puff-balls, sprouted from the grass by her feet. Pavel nudged them with his boot. They released a cloud of pungent spores and, fascinated, he bent and prodded them with his finger until they released more. He got out his phone and took a photograph.

“I’ve seen Oisín three times in the last four

years,” she said. “Emer will take him back to London tomorrow and I can’t bear it.”

He put the phone away and, reaching out, he took her hand. “I’m sorry,” he said. “I don’t understand why Emer would live anywhere else when she could live here. But then I guess I don’t understand Emer.”

“I’m a stranger to him,” she said. “I’m his grandmother and I’m a stranger. He’ll grow up not knowing who I am.”

“He already knows who you are. He’ll remember.”

“He’ll remember that bloody skull in the bucket,” she said bitterly.

Very softly, he began to stroke her palm with his thumb. She pulled her hand away and got up, stood with her back to him. Still facing away, she pointed to a dark corridor of trees that ran perpendicular to the main path. “That’s a short cut,” she said. “It leads back down to the roadway. I remember it from years ago when the children were small.”

This route was less used by walkers, tangled and overgrown, obstructed here and there by trees that leaned in a slant across the path, not quite fallen, resting against other trees. Ferns grew tall and curling and the moss was inches thick on the tree

trunks. In the quiet, she imagined she could hear the spines of leaves snapping as her boots pressed them into the mud. They walked with their hands by their sides, so close that if they hadn't been careful, they might have touched. The path brought them to an exit by the main road, and they walked back to the house in silence, arriving just as Colman's car pulled into the driveway.

They were all back: Colman, Emer, Oisín. Emer's mood had changed. Now she was full of the frenetic energy that often seized her, opening the drawers of the cabinet in the sitting room and spreading the contents all over the carpet, searching for a catalogue from an old college exhibition. Oisín had a new toy truck his grandfather had bought him. It was almost identical to the truck from beneath the stairs, except this one had all its wheels. He sat on the kitchen floor and drove it back and forth over the tiles, making revving noises. Colman was subdued. He made a pot of tea, not his usual kind, but the lemon and ginger that Kate liked, and they sat together at the table.

"How did you get on with Captain Kirk?" he said.

"Fine," she said.

Emer came in from the sitting room, hav-

ing found what she was looking for. She poured tea from the pot and stood looking out the window as she drank it. Pavel was at the end of the garden, taking photographs of the wind turbines. "Know what they remind me of?" Emer said, "those bumble bees John used to catch in jars. He'd put one end of a stick through their bellies and the other end in the ground, and we'd watch their wings going like crazy."

"Emer!" Kate said, "they were always dead when he did that."

Emer turned from the window, gave a sharp little laugh. "I forgot," she said, "Saint John, the Chosen One." She emptied what was left of her tea down the sink. "Trust me," she said, "the bees were alive. Or at least they were when he started."

Oisín got up from the floor and went over to his mother, the new truck in his hand. "If I don't take my laser gun, can I take this instead?" he said.

"Yes, yes," Emer said, "now go see if you can find my lighter in the sitting room, will you?" She made shooing gestures with her hand.

The child stopped where he was, considering the truck. "Or maybe I'll take the gun and I won't take my Lego," he said, "they proba-

bly have loads of Lego in Australia.”

“Australia?” Kate said. She looked across the table at Colman, but he was staring into his cup, swirling dregs of tea around the bottom.

Emer sighed. “Sorry, Mam,” she said, “I was going to tell you. It’s not for ages anyway, not until summer.”

In bed that night, she began to cry. Colman switched on the lamp and rolled onto his side to face her. “You know what that girl’s like,” he said, “she’s never lasted at anything yet. Australia will be no different.”

“But how do you know?” she said, when she could manage to get the words out, “maybe they’ll stay there forever.”

She buried her face in his shoulder. The smell of him, the feel of him, the way her body slotted around his, was as she remembered. She climbed onto him so that they lay length to length and, opening the buttons of his pyjamas, she rested her head on the wiry hair of his chest. He patted her back awkwardly through her nightdress as she continued to cry. She kissed him, on his mouth, on his neck, and, undoing the remainder of the buttons, she stroked his stomach. He didn’t respond but neither did he object, and she slid her hand lower, under

the waistband of his pyjama bottoms. He stopped patting her back. Taking her gently by the wrist, he removed her hand and placed it by her side. Then he eased himself out from under her, and turned away towards the wall.

Her nightdress had slid up around her tummy and she tugged it down over her knees. She edged back across the mattress and lay very still, staring at the ceiling. The house was quiet, none of the sounds of the previous night. She could hear Colman fumbling at his clothing, and when she glanced sideways, saw he was doing up his buttons. He switched off the lamp, and, after a while, perhaps half an hour, she heard snoring. She knew she should try to sleep too, but couldn’t. Tomorrow, they would return to London: Oisín, Emer and Pavel. Oisín would probably want to take the skull with him. She pictured him waking early again, sneaking down to the bucket at first light. Swinging her legs over the side of the bed, she went downstairs in her bare feet.

A lamp on the telephone table, one of Colman’s wooden lamps with a red shade, threw a rose-coloured light over the hall. The cat rushed her ankles, mewling and rubbing against her. “What are you doing

up?” she said, stooping to run her hand along its back, “why aren’t you in bed?” The door of the sitting room, where they kept the cat’s basket, was partly open. She listened, and thought she heard something stirring. The cat had been winding itself in and out around her legs and now it made a quick foray into the room, came running out again, voicing small noises of complaint. She went to the door and, in the light filtering in from the hall, saw a shape on the sofa. It was Pavel with a rug over him, using one of the cushions as a pillow.

He sat up and reached for his glasses from the coffee table. He appeared confused, as if he had just woken, but she noticed how his expression changed when he realised it was her. “Kate,” he said, and she was conscious, even in the semi-darkness, of his eyes moving over the thin cotton of her nightdress. The house was completely still and the cat had quietened, settling itself on the carpet by her feet. Pavel stared at her but said nothing more. They stayed like that, neither of them moving, and she understood that he was waiting, allowing her to decide. After a moment, she turned and walked down the hall to the kitchen, the cat padding after her.

In the utility room, she put on a pair of

rubber gloves and, dipping her hand into the bucket, lifted out the skull. It dripped bleach onto the floor and she got a towel and dried it off, wiping the rims of its eye sockets, the crevices of the jaws. She sat it on top of the washing machine and looked at it, and it returned her gaze with empty, cavernous eyes. Not bothering with a coat, she slipped her feet into Colman’s wellingtons and carried the bucket of bleach outside.

It was cold, hinting at late frost, and she shivered in her nightdress. In the field behind the house, the pile of newly-chopped wood appeared almost white in the moonlight, and moonlight glinted on the galvanised roof of the Dennehy’s shed and silvered the tops of the trees in the forest. She tipped the bucket over, spilling the bleach onto the ground. For a second it lay upon the surface, before gradually seeping away until only a flotsam of dead insects speckled the stones. Putting down the bucket, she gazed up at the night sky. There were stars, millions of them, the familiar constellations she had known since childhood. From this distance, they appeared cold and still and beautiful, but she had read somewhere that they were always moving, held together only

by their own gravity. They were white-hot clouds of dust and gas, and the light, if you got close, would blind you.

다니엘 맥러플린

다니엘 맥러플린은 2021년 1월 데뷔소설 <추락의 예술(*The Art of Falling*)>을 출간했다. 첫 단편 소설집 <다른 행성의 공룡들(*Dinosaurs on Other Planets*)>은 2015년 출간되어 큰 호평을 받았으며, 타이틀 단편은 <뉴요커>지에 실리기도 했다. 2019년 오더블 단편소설상과 윈덤캠벨상 소설 부문에서 수상했다. 현재 아일랜드 코크에 살고 있다.

Danielle McLaugh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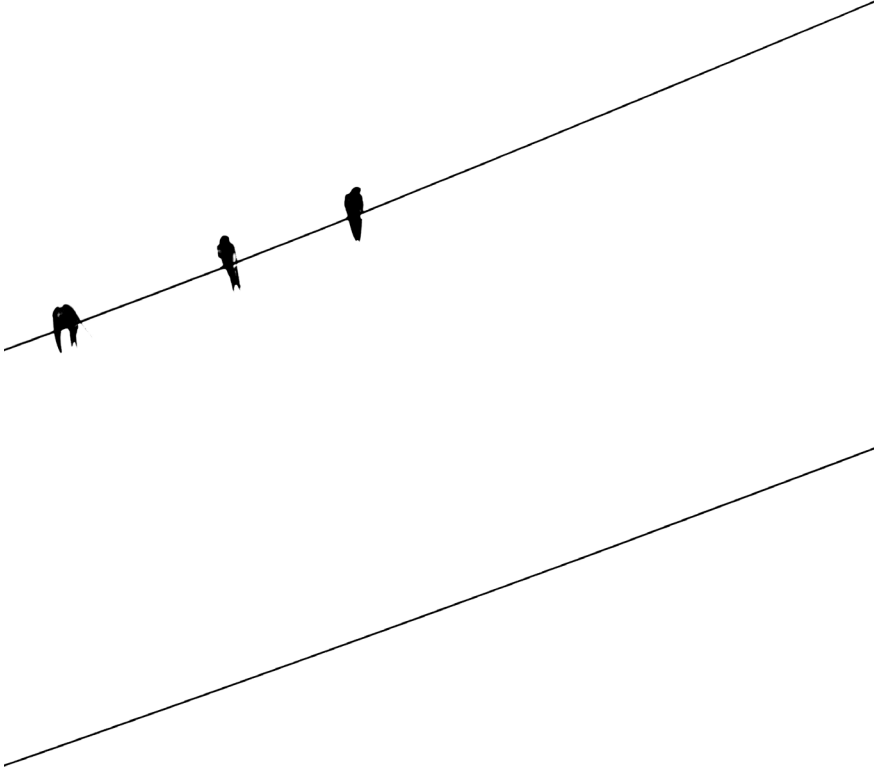
Danielle McLaughlin's debut novel, *The Art of Falling*, was published in January 2021. Her first collection of short stories, *Dinosaurs on Other Planets*, was published in 2015 to great critical acclaim, with the title story also appearing in *The New Yorker*. In 2019, she won the Audible Short Story Award and the Windham-Campbell Prize for fiction. Danielle lives in Cork, Ireland.

신 지현

역자 신지현은 전문 번역가, 프리랜서 에디터이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이다. 연세대와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그간 다양한 장르의 책을 8권 이상 번역했다. 현재 서울에서 10살난 말티즈 쏘이를 키운다.

Jeehyun Shin

Jeehyun Shin is a freelance magazine editor, an English-Korean translator and a lecturer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course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She has a BA in English Literature at Yonsei University and an MA in Consecutiv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HUFS. She has translated eight books in different genres including both fiction and non-fiction. She lives in Seoul, South Korea with Soy, the 10-year-old Maltese.



the arts
council
as chomhairle
ealaíon

funding
literature



Cultúr Éireann
Culture Ireland